

총·대선 승리 사기 고조...문제는 공천혁신

친노 화려한 부활 호남세 쇠퇴 기미

민주통합당 이끌 새 지도부 과제와 전망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주요 약력



총선 체제 전환...야권 연대 추진

민주통합당이 15일 전당대회에서 선택한 '한명숙호'는 당 안팎에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

그중 가장 큰 과제는 20년 만에 걸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또 정책혁신과 정당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면면을 볼 때 이 같은 쇄신행보는 어느 지도부보다 발 빠르고 폭 넓게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적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대선은 문재인·손학규 삼인고문 등의 치열한 경쟁 속에 '안철수 변수'가 대선을 향방을 결정짓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새 지도부의 1차 과제는 4·11 총선 승리다. 새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총선거확단을 발족하고 이날 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총선 총력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공천혁명'을 강조했다 때문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또 새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강력히 추진, 수도권 압승을 이끌 것을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새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정책 차별화를 위한 정책 쇄신도 시도해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야권 통합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정강·정책을 대폭 '좌클릭'한 상태다.

정당혁신도 새 지도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시민통합당 인사들은 시민참여정당을 표방하며 온·오프라인 정당 실현이라는 새로운 정당모형을 제시했다.

◇전망=쇄신 분위기가 왕성한 만큼 이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각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의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는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공천·정책·정당 개혁 추진 과정에서 통합 참여주체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쇄신 동력을 잃고 사분오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미디어랩법 등을 놓고 통합 주체 간 발생한 갈등에 비춰볼 때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정치적 배려와 양보가 필수적이라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총선에서의 공천혁신은 야권연대와 맞물려 현역 의원들의 대대적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물론 이는 당내 갈등으로 이어져 상당한 이탈세력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여권의 분열과 맞닥뜨릴 경우 정치권 전체의 혼란과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월 대선이 새 지도부 아래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문재인 삼인고문이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한명숙·문성근 후보 등 친노(친노무현)계의 강



당 대표 한명숙	최고위원 문성근	최고위원 박영선	최고위원 박지원	최고위원 이인영	최고위원 김부겸
출생 1944.3.24	1953.5.28	1960.1.22	1942.6.5	1964.6.28	1958.1.21
출생지 평안남도 평양	일본	경상남도 창원	전라남도 진도	충청북도 충주	경상북도 상주
학력 이화여대 학사·석사, 한국신학대 석사	서강대 학사	경희대 학사, 서강대 석사	단국대 학사, 조선대 명예박사	고려대 학사·석사	서울대 학사, 연세대 석사
주요경력 2000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2001 여성부 장관, 2008 민주당 상임고문, 2012 민주통합당 당 대표 선출	2010~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대표, 2011 혁신과통합 상임대표,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출	2007 대한국민당 국회의원, 1999 문화부 장관, 2004~2007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8~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출	1992 민주당 국회의원, 1999 문화부 장관, 2002 대통령비서실장, 2008~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출	2004~2007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7 대통령비서실장, 2008~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출	2000 16대 국회의원, 2004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8 민주당 국회의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출

*출처: 15일 전당대회 특보



15일 오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손 전 대표도 크게 불리한 여건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경선 과정에서

지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이인영·김부겸 후보를 지도부에 입성시켰고 박영선 최고위원도 손 전 대표 측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 대표 한명숙은 누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로 당선됨으로써 '철의 여인'으로서 새 역사를 쓰게 됐다.

신임 한 대표는 당의 여러 세력간 화학적 결합을 견인하면서 정책 및 인적쇄신을 통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 진두지휘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조사로 수난을 거듭하며 저항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작은 2009년말 '총

'저항의 아이콘' 합리적 성품

리 재직시 5만달라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강제구인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 대표는 이듬해 4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나 곧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지난 13일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박빙의 승부 끝에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획득한 세대를 초월한 지지와 야권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은 그를 올해 양대 선거를 진두지휘할 야권의 수장으로 올려세웠다. 그는 지난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야권

정치인이었다. 검찰 수사로 일생일대의 시련기를 겪었지만,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인한 야성을 갖춘 '정치인 한명숙'으로 재조명된 전기를 맞이한 셈이다.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본래는 재야 여성운동가 출신이다. 여성운동 초창기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다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됐고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처벌법 등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 재야운동의 정통성과 전

문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그는 초대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17대 총선 직전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구(고양 일산갑)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 당혁신위원장을 지내다가 이듬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신학박사인 박성준(朴聖煥)씨와 1남.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시작하면 끝이 어딜까?

젊음과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물세트

그린알로에 네추럴 바디용품

샴푸, 린스
탈모방지, 양모효과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샤워코롱, 워시(청결제)
네추럴 바디용품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샤워코롱
네추럴 바디용품

샤워코롱, 바디로션
네추럴 바디용품

치약 4개
구취제거, 충치예방, 잇몸질환예방, 치은염
치주염예방 등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